

“대학-지역-기업의 대표적 동반성장 모델로 도약할 것”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오늘 취임 3주년, 새로운 목표 제시 노벨상급 석학·총장 자문위 등 운영 “5년 내 세계대학 순위 톱 100 진입”

“2027년까지 5년 안에 세계대학 순위 톱 100에 진입해 명실공히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은 23일 취임 3주년 간담회를 갖고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 연구와 창업은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에서 나왔고, UNIST의 목표도 그와 같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25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이 총장은 2019년 11월 UNIST 4대 총장으로 선임됐고, 임기는 2023년 11월까지 4년이다.

UNIST는 올해 주요 세계대학평가에서 100위권(THE 174위, QS 197위)에 진입했고, 국내 순위는 5~6위권에 안착했다. THE가 발표한 설립 50년 이내 세계신용대학 순위에서는 세계 11위, 국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이를 위해 “연구와 교육, 국제



협력 등 전 분야에서 ‘글로벌 퍼스트 무버 DNA’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결과는 ‘노벨상급 탁월한 연구’와 ‘구글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 창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노벨상급 석학과 세계 최고 대학 총장 등으로 이뤄진 ‘총장 직속 국제자문위원회’ 운영 △세계 100대

대학과의 직접 교류 확대를 글로벌 위상 제고 △국제 공동연구와 해외 연구파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국제 연구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UNIST가 지난 3년간 이뤄낸 지역 혁신과 동반성장 성과도 언급했다.

이 총장은 “(UNIST 총장으로) 부임한 이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탄소중립, 바이오메디컬 등 4대 전략 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울산과 동남권의 지역 혁신과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NIST는 2020년 문을 연 AI대학원과 AI혁신파크를 통해 전통 제조 도시 울산에 AI 기반 첨단산업도시로 탈바꿈 중이다. 또 2021년 개원한 반도체소재·부품대학원과 차세대 반도체연구단을 중심으로 울산의 정밀화학기업을 차세대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으로 변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총장은 “앞으로 ‘에너지실증파크’(가칭)를 구축해 울산을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연구·실증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2023년의 과학원 설립과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연구와 창업을 통해 울산이 첨단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 기반을 놓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UNIST는 지역 발전을 위해 인재와 기업, 기술혁신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 화답해 덕산 이준호 회장이 300여 원의 발전기금을 내주셨고, 이는 대학-지역-기업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전기금은 UNIST가 글로벌 창업인재 양성의 요량으로 추진하는 ‘철원지용합관’ 건립에 투입된다. 건물은 내년 초 착공해 2026년 말 완공 예정이다. UNIST에서는 개교 이후 현재까지 교수와 학생 창업기업을 총 145개 배출했고, 시장 가치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총장은 부임 후 3년간의 성과에 대해 “총장에 취임하며 ‘해야 할 일을 잘하는 대학’이 되자고 강조했다. 계획했던 일들을 대부분 이룬 것 같다”고 자평하며 “울산시의 관심과 울산시민의 성원, UNIST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년 UNIST에 입학하는 인재들의 절반만 울산에 남을 수 있다면 울산의 미래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해 왔다”며 “최고의 인재들이 머물고 싶은 대학이 되도록 교육, 조직문화, 캠퍼스 환경 등 전반에 관심과 지원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김주희 교수, 부일여성대학 강연

김주희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부산일보사강당에서 열린 제258기 부일여성대학에서 ‘같은 시대, 세계정치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교수는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배경과 경과, 파장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이경윤 한전 부울본부장 취임

이경윤 신일 한전 부울본부장이 15일 취임했다.



이경윤 본부장은 성원고와 전북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한전에 입사해 본사 기술기획처 기술전략실장, 울산지사장, 본사 에너지신사업처장 등을 지냈다.

본사 에너지신사업처장 재직 시 에너지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전기차 충전 30개 파트너사와 협력해 EVC 플랫폼 ‘ChargeLink 2.0’을 출시했다.

김상훈 기자

인사

◇부산일보 △편집국 콘텐츠센터 경제부 금융·블록체인팀장 겸 비온미디어 편집국장 김중열 △ “산업팀장 권상국 △ “부동산팀장 장병진 △정차부 차장 김형 △사회부 차장 김경희 △ “차장 윤여진 △ “차장 김백상 △ “중서부경남본부 차장 김길수 △ “중서부경남본부 차장 김민진 △ “동부경남울산본부 차장 김태권 △ “동부경남울산본부 차장 권승혁 △기획취재부 차장 이자영 △스포츠라이프부 차장 이대성 △ “차장 이대진 △서울지사 서울정치팀 차장 김중우 △경영국 경영지원부 부국장 강춘원 △전략기획국 전략기획팀장 겸 비온미디어 경영국장 강경우 △북항사육진단 차장 이종호 △광고국 광고1부장 이승욱 △광고2부장 고달우 △광고2부 차장 남기곤 △광고3부장 한정호 △문화사업국 기획사업팀장 송창현 △모바일전략국 콘텐츠기획부 선임기자 이재희.

화측

△심정섭 (빅아일랜드인거제PFV(주) 대표이사) 김동선 씨 장남 재민 씨, 최홍식 윤연자 씨 장녀 지혜 씨. 12월 3일 오후 7시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2) 15층 베르사이유홀. 010-4706-3301.

지방신문협회,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성공 개최 결의

해운대 ‘축제박람회’도 협조 합의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이하 한신협)는 24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제69차 총회를 열고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성공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내년 제1회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 행사 규모와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회원사 간 협조를 통한 원활한 행사 개최에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는 전국 9개 시·도 주요 일간지로 구성된 한신협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재정확충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 제1회 행사는 내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다. 한신협은 또 내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도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규모를 감안해 회원사 간 협조에 뜻을 모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24일 오후 대구 호텔수성에서 김진수(맨 오른쪽) 부산일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차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엔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을 비롯해 정창홍 매일신문 사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남길우 경남신문 회장, 김여승 광주일보 회장, 김재철 대전일보 사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오영수 제주일보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신협은 이날 총회를 마친 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시대 구현의 중요성에 대

한 공감을 바탕으로 △지방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 상호 교류 △주요 정책 홍보에 관한 프로그램의 공동기획과 제작 △공동 관심분야의 세미나·간담회 등 공동기획·추진 등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협약식 후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초청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마련했다.

김상훈 기자 neat@



(주)대성문, 부산그룹홈지원센터에 식료품

(주)대성문(사장 채창호)은 18일 부산 시그룹홈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1000만 원 상당의 식료품 370개와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주)대성문 채창호(왼쪽) 사장과 그룹홈지원센터 강양숙(오른쪽) 팀장이 참석했다.

(주)대성문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성금과 식료품 등을 사랑의열매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다수 봉사단체 후원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 왔다.

올해도 ‘부산시 그룹홈 지원센터’에 식료품과 성금을 기부했다. 그룹홈 지원센터는 가정의 해체,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

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보호시설인 그룹홈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채창호 사장은 “지역 사회와 이웃에서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위해 활발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그룹홈지원센터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더 많은 도움을 전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양숙 팀장은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대성문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헌에 감사드립니다”며 “기부 물품과 성금을 여러 보호시설이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부산중앙신협, ‘어부바박스’ 전달

부산시중앙신협(이사장 양철성)은 22일 임직원과 조합원으로 구성된 두손모아봉사단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 남구노인복지관 취약계층 어르신 200가구를 위해 전기장판 난방용품과 식료품을 담은 어부바박스를 전달했다.

김상훈 기자



(주)바른약품, 보호아동 후원금

부산지역 전문의약품 유통 기업인 (주)바른약품(대표 배우우·오른쪽)은 21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부산지역본부장 노희현)에 부산지역 저소득가정 아동과 보호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360만 원을 전달했다.

김상훈 기자



하이트진로, 서구복지관에 김장김치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 부산지사는 24일 부산서구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을 했다.



(주)KSS해운 봉사단, 영주1동에 김치 나눔 (주)KSS해운(대표 이승우) 나눔봉사단은 22일 저소득 이웃을 위해 부산 중구 영주1동 주민센터(동장 최두석)에 김장김치 5kg들이 170세트를 전달했다.



부산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위령미사 부산시 호스피스 완화케어센터(센터장 김숙남 교수)는 18일 위령성월을 맞아 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세상을 떠난 대상자를 기리기 위해 위령미사를 불렀다.



도시농업관리사협회, 농업인 전진대회 한국도시농업관리사협회(대표 정복교)는 22일 텃밭 활동을 통해 도시민이 소통하고 농촌과 융합을 실현하기 위해 ‘제1회 한국도시농업인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부산법무사회, 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부산지방법무사회 안재문 법무사 등은 19일 경남 밀양시 상동면 외대마을을 주된 20여 명과 함께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기원했다.



우리은행 부산경남동부본부, 이웃사랑 성금 우리은행 부산경남동부 영업본부(본부장 박명훈)와 온천동금융센터(센터장 임대진)는 22일 동래구청(구청장 장중용)에 이웃사랑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북·사상구 재향군인회, 참전유공자에 반찬 부산 북·사상구 재향군인회(회장 박종희)는 17일 6·25 참전유공자 추모를 계신 어르신 40명에게 반찬나눔을 실시했다.



동삼1동 통장협의회,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 부산영도동 동삼1동 통장협의회(회장 이덕우)·반도보라버치타운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김해성)는 22일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에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